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성(性)의 이해 -가정폭력과 성의식-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우리 사회에서 가정내의 폭력은 대부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취급 되어왔으나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않된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성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폭력의 개념

1) 용어의 정의

대부분 가정폭력은 아내구타에서 비롯된다. 물론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극소수에서 남편구타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내구타가 대부분이다.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spouse-abus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지고 있다.

2) 폭력의 실태

아내구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상담을 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당연하고 가정내의 문제로만 은폐되어 왔으나 이때부터 사회문제화 한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소의 경우는 여성 응답자(640명)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성 응답자(560명)의 50.5%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상황

1)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 경제적 이유보다는 폭력자의 인격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구충족에만 집착하는 성격 구조와 충동을 조절할 줄 모르는 성격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인격장애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착취하기만 하는 편집성 인격장애, 감정조절, 충동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정서적 불안정 인격장애,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생각하는 이기적 인격장애, 불만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피동공격형 인격장애 등 여러 형태의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부부폭력을 일삼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고 아이들도 때렸다. 아버지로부터 맞은 어머니는 화풀이로 아이들을 때렸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치고 받는 것 밖에 보고 배운 것이 없는 것이다.

2) 때리는 이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하다.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다. 때리지 않고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다 뺨 한대 때리는 것도 부부폭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시하는 부부폭력은 A,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B, 때릴 구실을 만들고 C, 걸려들면 때리고 D, 때리고 나면 긴장이 풀리는데 E,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을 말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구실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쉬운 구실은 누구와 바람을 피웠냐? 남편을 뭘로 보느냐? 여자가 왜 콧대가 세냐? 반찬이 이게 뭐냐? 등 한없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3) 어떻게 때리는가?

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목을 조르는 일, 주먹이나 발로 마구 난타하는 것, 흥기로 때리거나 총으로 쏘는 정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상처부위별로 보면 일반적인 상처의 경우와는 다르게 머리와 얼굴을 주로 때린다.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아내만 때리는 것은 아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75% 정도가 어린 자녀도 때린다. 때린 다음날 아주 상냥하게 대해준다.

4) 매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나 폭력남편을 만나면 예외가 없다. 과거에는 맞는 아내의 성격 혹은 행동특성을 논한 일이 있으나 그런 특징들은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 성격과 행동양식이 폭력으로 노예화된 현상(Victimization)”에 불과하다.

5) 매맞는 아내의 희생화 과정

(Victimization process)

가정폭력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폭력 희생자의 희생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제1기(분노의 시기) : 폭력을 당하는 초기에는 분노와 수치심, 자존심의 손상으로

가득찬다.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제2기(공포의 시기) : 폭력이 반복되면 또 다시 폭력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보복이 두려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 공포의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죽음의 재경험이 일어나는데 폭력 상황 혹은 남편과 관련된 상황을 회상하거나 기억에 떠오를 때는 공포에 휩싸인다. 더러는 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도 생겨서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

제3기(무기력의 시기) : 폭력에 계속 시달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더불어 자존심의 손상과 공포 때문에 독립심이 전혀 없고 아주 무기력하게 된다. 매사에 결단을 못 내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가기만 한다. 더러는 자살을 하는 수도 있고 일시적인 착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남편에 대항하여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6) 폭력희생자의 행동특성

(1) 주눅이 든 표정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주눅이 들어 있다. 늘 경계를 하고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다.

(2) 자존심이 아주 약하다.

폭력에 주눅이 들면 자기 확신, 자신감이 전혀 없게 된다. 즉 자존심이 약하다.

(3) 말을 잘 바꾼다.

금방한 말도 바꾸어 정반대의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이 다른데 어느 것이 사실이나 몰으면 화를 낸다. 남편의 보복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4) 자기를 돕는 사람을 실망시킨다.

자기 문제를 도와 줄 수 있는 상담원, 의사, 경찰, 친구들을 실망시킨다. 이혼할 것이라고 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달려든다. 이는 자기를 도와 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퍼붓는 것이다.

7) 가정폭력(아내구타)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1) 얼굴이나 몸에 피멍이 든 부인

(2) 얻어맞은 상처가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부인

(3) 남편과 자주 다툰다고 말하는 부인

(4) 남편의 외도를 문제삼는 부인

(5)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내 증상만 고쳐주면 되지않느냐고 불평하는 부인

(6) 아이들이 남편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부인

(7) 잘 놀라는 부인

(8) 얼굴표정에 자존심이 폭 상한 혹은 주눅이 든 인상이 풍기는 부인

이상과 같은 단서가 포착되면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끔 다투시나요? 남편이 손찌검도 하시나요? 사실을 숨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 보면 의외로 솔직해지는 수가 많다. 의사가 사정을 잘 알아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3. 가정폭력의 통념과 성의식

1) 통념

- (1) 아내구타는 부부싸움이다.
- (2)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아내구타가 극소수이다.
- (3) 아내구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4) 폭행부부는 낮은 사회계층에 많다.
- (5) 아내 구타자는 의처증이 있다.
- (6)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때린다.
- (7) 매맞을 짓을 하니까 매를 맞는다.

2) 성의식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의식은 남성우월적이다. 아내구타의 문제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왜 일까?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폭력적인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어떤 짓을 하여도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복합적인 문화적 요인,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법적 및 사회적 의존성, 숨어서 지낼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생각, 가해자가 통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예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지 모른다는 감정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나 성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음을 본다.

이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

활이 아니라 힘에 의해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여성은 순종적이며 의존적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더욱이 만성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사는 아내는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고 주체성을 갖기 어렵다.

4. 가정폭력방지법

1997년 11월 18일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지 1년이 경과되었다. 이 특례법에서는 경찰관의 즉시 개입 및 출동, 현장 상황에서의 법관의 영장에 의한 행위자에 의한 임시적인 주거 등 퇴거 명령, 접근금지 명령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례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우리사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법적인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법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의 문제가 아직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경찰에서부터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민**